

제 2강 그리스 (1) 신화, 발굴, 역사

1. 그리스의 환경과 인간

A. 지중해의 환경

- i. 여름과 겨울
- ii. 지형과 농지: 75% 산지 30% 평지 20% 농지
- iii. 나무와 물: 목재는 BC 5세기에 이미 수입. 제한된 강수량
Comp.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대규모 관개농업
- iv. 석재와 진흙은 비교적 풍부 → 신전, 토기

B. 지중해의 식량과 가축

- i. 지중해 3대 작물
- ii. 양, 염소, 돼지, 생선, 무화과, 콩, 기타 채소
- iii. 소, 노새: 경작에 필수, 말: 신분 상징
→ 소규모 자영농의 세계

C. 헬레네스와 헬라스

D. 그리스인과 바다

- i. 활발한 해외 식민, 기원전 8-6세기: 나폴리, 모나코, 니스, 레지오 外
- ii. Magna Graecia

2. 그

신화: 전승된 기억. 'timeless' cf. 4시대 구분법과 '영웅시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 오딧세이아

i. 일리아스의 주제: 아킬레우스의 분노

은 ii.

왕

넋

체

히

아

C. 19세기의 (아마추어) 발굴

i. F. Schliemann: 영웅 시대의 재발견

1.

2.

3.

1. 호메로스 서사시의 역사성 확신

2. 1870 트로이 발굴. (Hissarlik) 1874 미케네 발굴

3. "아가멤논의 지휘 아래 연합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10년간 포위 공격하여 파괴했다."

ii. A. Evans (Sir) (1851-1941): 크레타 발굴

1.

2.

3.

1. 미노스 왕의 신화

2. 1899 크노소스 발굴

3. Linear A, B

3. 그리스 청동기 말기: 크레타의 미노스 문명

- A. 미노스의 사회와 문화(기원전 1700년-1500년경)
 - i. 왕궁 건축: 크노소스에 최초의 왕궁; 이후 파이스토스, 말리아, 자크로스 등에서도
 - ii. 국제교역: 이집트 및 서남 아시아와 교역; 입지의 이점
 - iii. 근동의 국가주도 경제의 소규모 복사판
- B. 미노스 문명의 왕궁 중심 경제
 - i. 크노소스 왕궁 복합체
 - 1. 기원전 1,700년경 건설(이전 왕궁은 지진으로 파괴), 1375년경 최종 파괴
 - 2. 많은 방들(주거, 작업, 창고); 중심에는 넓은 마당
 - 3. 사회의 중심: 정치, 행정, 경제, 의례, 종교행사의 중심지
 - ii. 재분배경제
 - 1. 왕궁 직영지 및 농민 사유지의 소출이 왕궁으로 수납/반출.
 - 2. 왕실의 막대한 부; 작업장 인부 유지; 비상 비축분
 - iii. 교역과 문자
 - 1. 대규모 창고와 작업장: 활발한 교역-양모, 아마, 가죽, 청동, 금, 상아, 목재.
 - 2. 문자 사용: 경제 기록 → 선형 A, B(linear script A, B); 음절문자. 기원전 1,800년경부터.
- C. 미노스 문명의 사회 계급
 - i. 계급사회: 특권층의 사치와 부가 다수 평민의 소박한 삶과 극적으로 대조
 - ii. 왕: 전쟁지도자, 입법가 겸 판관, 사제
 - iii. 노예: 대규모로 사용됨. 사물로 취급. 전쟁노예가 기원. 주로 왕궁에 소속.
- D. 미노스 문화
 - i. 근동과 이집트의 영향: 예술과 건축 양식
 - ii. 크레타의 독특성: 지향성
 - 1. 근동의 예술 주제는 위대한 왕
 - 2. 크레타 벽화에는 왕의 정복과 전투 장면이 거의 없음. 자연이 주된 모티프.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장난스럽기까지. 아름다움과 매력에 관심
 - iii. 크노소스의 왕궁
 - 1. 거대한 규모와 복잡함(3.2에이커, 300여개의 방, 지하실과 2-3층), 우아한 건축양식, 밝은 색채, 상하수도 시설, 벽과 복도의 벽화장식
 - 2. 정교하고 생기 넘치는 동적 예술; 남성은 면도와 짧은 킬트(이집트식), 여성은 화려한 치마와 가슴을 노출하는 윗도리, 양성 모두 장발, 파마, 장신구 착용
 - 3. 성벽이 없음?
 - A. 초기 발굴자들의 낭만적 상상-걱정과 분쟁 없는 해상제국
 - B. 육전, 해전을 묘사한 그림들. 성벽 흔적 발굴.

4. 그리스 본토의 청동기 말기: 미케네 문명 (기원전 1580년-1150년경)
 - A. 미케네 지역은 미노스 문명의 모방국가들.
 - B. 기원전 1500년-1450년경 크레타 점령
 - i. 사회와 문화는 크게 변하지 않음(←이미 '미노스화'된 미케네인들)
 - ii. 기원전 1375년경, 크노소스 파괴(who?); 크레타 몰락, 미케네 여타 지역 부각
 - iii. 선형문자(linear script A, B)
 1. 기원전 1,900년경부터, 그림문자: 인장의 기능
 2. 기원전 1,800년경부터 음절 문자(선형 A) 사용: 아더 에반스 발굴. 광범위한 사용(크노소스, 파이스토스, 말리아, 여러 섬들)
 3. 선형 B: 필로스와 남서 그리스 지역에서 대량 발굴
 - A. 해독: 1954, M. Ventris(와 J. Chadwick) → "Not quite the Greek you taught me".
 - B. 미케네 문명은 그리스어를 사용; 미케네인은 선형 A를 수용, 변화시켜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 문자의 목적은 왕궁의 출납기록; 기원전 15세기부터 미케네인이 크레타 지배
 - C. 미케네 시대 초기(기원전 1600년~1400년)
 - i. 원형 무덤(A, B)과 'shaft grave'
 1. A(기원전 17세기 말~1,500년): 청동무기, 토기
 2. B(기원전 16세기 초~1,500년): 많은 무기류와 귀금속(금, 은, 청동, 상아, 석화석고, faience, 호박: 크레타, 키프로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아나톨리아, 서부 유럽에서 수입) → 지배자의 권력 증대
 - ii. 톨로스 무덤(기원전 1,500년 직전부터)
 1. 미케네 공학의 정점; 그리스 전역에서 발견
 2. 돌로 쌓은 긴 복도와 거대한 청동 문을 거쳐 원추형 석실에 도달; 외부는 흙으로 덮음
 3. 부장품 대부분 도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부유함; 완전히 '미노스'화됨.
 - D. 미케네 시대 후기(기원전 1,400년~1,200년경)
 - i. '키클롭스의 성벽'
 1. 크레타와 다름: 산 위에 지은 거대한 성채
 2. 지나치게 큰 규모: 방어용일 뿐 아니라 권력 과시용.
 - ii. 메가론
 1. 크레타의 정원 대신, 미케네는 화덕을 갖춘 큰 홀: 왕궁 의례의 중심
 2. 암흑기와 이후까지도 지배자의 집 구조; 8세기 이후 신전 건축의 기본
 - iii. 왕성
 1. 미노스 문명 수준의 세련되고 아름다운 생활 제공
 2. 화려한 벽화: 미노스 문명과 유사한 복식 / 본토식의 긴 튜닉도 등장.
 - E. 미케네 제국?
 - i. 메세니아의 필로스: 일정 지역 내 단일 중심지에 기반한 소규모 왕국

- ii. 아르골리스: 미케네와 티린스처럼 인접한 10개의 주요 도시 병존; 미케네가 티린스를 지배? 아니면 티린스가 미케네의 우월성을 인정하기는 해도 역시 독립적? Comp. 아티카의 아테네; 보이오티아의 테베
 - iii. 기원전 1,600년~1,400년의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
- F. 미케네 문명과 지중해
- i. 전성기(기원전 1,300년경)에 활발한 대외교역
 - 1. 사르디니아,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 트로이, 이집트, 마케도니아
 - 2. 로도스와 키프로스를 포함하여 소아시아 해안에 거점 확보
 - ii. 해적, 약탈
 - 1. 히타이트와 이집트 신왕국에 이은 세 번째 세력
 - 2. 히타이트 문헌(기원전 14, 13세기): '아히야완' ← '아카이오이', 히타이트 왕과 선물교환, 전차 기술 전수, 히타이트 왕을 위해 '아히야와'의 신 소환, 때로는 전쟁
- G. 미케네 왕국의 구성
- i. '네스토르의 왕궁' 발굴(1939, C. Blegen)
 - 1. 메세니아는 좋은 자연조건 덕분에 인구밀도 높음
 - 2. 필로스(선형B문자, '푸-로'): LHIIIA-LHIIIB에 전성기
 - 3. 기원전 1,200년 파괴 이후 처음 발굴: 점토판 대량 출토
 - ii. 점토판 기록(선형 B)
 - 1. 일상의 기록을 위해 사용; 항구적 기록 목적 아님 → 화재로 인해 영구적으로 보존됨
 - 2. 일상의 행정 세부사항들에 대한 정보
 - iii. 미케네의 사회구성
 - 1. 지배자('와낙스')-군지휘관('라와게타스')-고위관료('테레스타이'-직능모름; '헤케타스'-아마도 군장교)-하급관료('코레테스'와 '프로코레테스'-200여개의 마을을 두 개의 '도'와 몇몇 '군'으로 분할하여 관리; '파시레우'-마을 담당)
 - 2. 고급관료는 '와낙스'에게서 땅을 받고 봉사와 소출의 일부 상납.
 - 3. 인구 대부분은 농민
 - A. 열악한 삶의 여건; 50-60가구가 한 마을 형성
 - B. 왕궁의 세밀한 감시/감독: 세금, 노역, 군역, 왕궁의 가사노동
 - 4. 노예
 - A. 필로스의 경우, 여성 노예 600명(아동 600명): 곡물분쇄, 목욕수발, 길쌈 등등; 대부분 왕궁 소속
 - B. 노동력으로써 그리고 상품으로써 가치.
 - 5. 전문적 생산자
 - A. 상당한 수, 다양한 직업군 존재: 목수, 석공, 청동 장인, 금세공인, 활 장인, 무기 장인, 가죽 장인, 향수 장인, 의사
 - B. 여성의 경우: 소모(梳毛)하는 사람, 실 잣는 사람, 천 짜는 사람, 수 놓는

사람.

- C. 왕궁은 생산자들을 면밀히 감시. 서기가 세밀하게 기록
- D. 목양과 양모
- E. 야금술: 필로스의 경우, 400명의 청동 장인
- F. 주요수출품: 양모와 금속제품이 주; 올리브 기름, 포도주, 가죽, 채색 토기, 보석, 사치품
- G. 수입품: 구리, 주석, 금, 상아, 호박, 염료, 향신료, 기타 사치품

5. 미케네 문명의 종말

- A. 레반트의 전반적 파괴
- B. 도리스인의 침입?
 - i. 기원전 13세기 중반, 미케네 각지의 '재무장'
 - 1. 미케네, 티린스, 아테네: 성벽 증축, 수자원 확보
 - 2. 코린토스의 이스트무스: 북방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벽 건축
 - ii. 침입자들의 정체는?
 - 1. 도리아인의 침입설
 - A. 북방(에피로스와 테살리아)에 살던 도리스족이 남하, 펠로폰네소스 장악
 - B. 고대 '헤라클레스 일족의 귀환'설
 - C. 전설과 방언의 분포의 일치
 - 2. 고고학의 반론
 - A. 도리스인의 집단적 남하는 고고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 B. 도리스인의 흔적은 파괴 이후에나 나온다.
- C. '체제 붕괴'?
 - i. 기상 악화로 인한 흉작 → 위기 고조 → 외부의 침입에 취약
 - ii. 지중해 무역의 중단 → 경제회복 불가능
- D. '바다 사람들'?